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한달 앞으로

운영위원회 조직 완료, 강의 및 강사 확정

우리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 연구원 (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이 주최하는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한국연구원에서는 자국복음화를 책임질 지도자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폭넓은 신학 지식과 신앙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 들어가 사역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선교전략이라고 보고 1990년에 동구라과 7개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1991년에 중국어권 목회자, 1992년에 힌두교권 목회자, 1993년에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 1994년에는 러시아 교회 지도자, 그리고 작년에 이슬람권 목회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금번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에는 오세아니아와 그 주변국의 교회 지도자가 참가한다. 특별히 올해는 김치가 로잔의 공인기관이 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기획·진행, 시설, 의전, 홍보, 봉사, 재정 등 8개 분과의 조직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강의 및 강사



를 살펴보면 개회예배 시 ▶세계선교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이중윤 목사의 강의를 비롯, ▶한국교회약사(언더우드 / 연세대 명예교수), ▶성경적 교회갱신원리 및 실제적 적용, II(이중윤 / 서울교회 목사),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이윤구 / 선명회 회장),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활동(김상복 / 할렐루야교회 목사), ▶평신도 전도운동(킨슬러 / 미국 장로교 선교사), ▶한국교회와 기도생활(손영준 / MTI원장), ▶전도의 전략과 실제(이광순 / 장신대 교수),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조종남 전 서울신대 학장) 등이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얻고, 국가별 전략모임(National Strategy Meeting)을 통해 적용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교회·기독교학·신학교를 방문하고, 교회학교와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을 돌아보며 다락방모임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세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나라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김치세미나의 제반 경비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바친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별히 온 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는 기회를

오늘은 장애인 주일.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선교연합회와 몇몇교회들이 지정해 지키기 시작한 장애인 주일은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이미 정부차원에서는 지난 81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하루가 정해진 것은 달력의 숫자가 허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는 전체 인구의 2.3%

인 105만3천명(95년말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달한다. 이중 교통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후천적장애자가 전체 장애자의 88.1%을 차지해 90년의 82.9%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은 '그들'이라는 말로 묶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님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교통수단 이용 불편', '동반자 없음', '편의시설 미비' 등이 꼽혀 아직도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조차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를 새로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함께 느껴보고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달란트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님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어려움과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기간동안 수많은 장애인들과 접촉하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 기사들을 남겨 주셨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창세기
강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죄

(창세기 39장 6절 - 12절)

이종운 목사

시험이 올 때 인간의 감정이나 욕정보다 하나님께 복종한 요셉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그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고 믿었으며 그것을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1. 죄는 죄다(9절).

요셉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죄를 악이라 불렀습니다.

악마가 유혹하거나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죄를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한 적개심이나 혈기를 자기표현 또는 속을 탁 풀어놓은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기 쉽습니다. 자기표현은 좋은 것이며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랑을 자기 존중으로 해석하고, 폭음이나 폭식은 생을 즐기는 것이라 여기며, 시기심은 자기 발전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태성욕은 또다른 생활양태이며, 음란한 행위는 실험을 위한 것이고, 간음은 과정에 이른 결혼생활을 치유키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횡령은 비자금을 마련키 위한 것이자 그 늘린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며 부정축재는 관행일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이처럼 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2. 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8절 - 9절).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자기를 믿어준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도덕적 빚을 지게 되며,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으나 자기 아내를 준 적이 없으며,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와 죄를 짓게 되면 그 여자 뿐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람들은 종종 간과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결과를 무시해 버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무질서한 성행위가 인간 사회에 가져오는 해는 단순한 질병만이 아니고 미혼모, 사생아, 낙태, 가정 파괴, 좌절, 혼돈, 상처받은 아이들의 타락 등 사회악과 범죄가 되풀이 됩니다.

'나는 다만 즐기고 싶다', '누가 나의 쾌락

을 막을 수 있나'라고 현대인들은 절규에 가깝게 외치고 있지만 죄는 항상 타인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3.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9절).

죄는 악하며 다른 사람을 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밋세바와 죄를 범한 다윗은 후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51:4)라고 자백합니다. 밋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그가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며, 선악의 차이를 배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의 태도였습니다.

죄의 유혹이 단순히 마음에만 있는 한 - 아직 시행되지 않은 한 - 아직도 승리할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한다면 그때는 전쟁에서 패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신앙 고백을 부인한 것이 됩니다. 고로 우리는 죄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한 일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요일1:6-7). 인간에게 대항하는 것도 악한 것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니다. 아마도 요셉은 주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것입니다. 신앙

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셉은 바빴습니다. 그는 의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항했습니다. 의를 실천했고 죄를 피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말만 만드는 자가 아니요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악으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악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 교제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목사와 의논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죄를 피하려고 필요시 지체없이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삶 속에 실천하면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순례자 컬럼 ✧

"기적"

개구리 한 마리가 산비탈에서 돌무덤에 깔려 소망이 없게 되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개구정이 소년이 발길로 걸어서 돌망이들이 날아감으로 개구리는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다.

현재상황에 부딪혀 오늘도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는 전능자의 손길이 임해야 살 수 있게 된다. 불신과 불의 그리고 불충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게 된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옥갈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기적이 생긴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기적과 치유 기적으로 대분된다. 전자는 예수께서 자연의 주되심을 그리고 후자는 생명의 주되심을 각각 계시하시기 위해 주신 것들이다. 오늘도 천지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는 이들은 기적을 보게 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유난히도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재호. 사랑부 집회시간에는 강대상을 향해 달려가며 피아노 옆에서 건반을 두들겨도 보고 즐거워하였고 스피커 옆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곤 했었다.

그가 생활을 하던 주몽재활원 내에서는 식사시간이든 방안에 있는 시간이든 어느 때이고 식탁이나 의자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이란 짧막한 찬송을 자주 부르고 다녀 주위에선 그에게 꼬마 전도사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었다.

아무에게나 '엄마'라는 호칭을 붙이곤 하던 재호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제일 먼저 '엄마! 찬송 노래 들어줘'라는 말까지 했다.

내가 재호를 만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모습에 하이얀 얼굴의 재호는 간질을 앓고 있었고, 아홉살이 되었지만 정신지체 때문에 글자는 전혀 모르고 숫자만 겨우 1, 2, 3, 4 정도까지 셀 수 있

사랑하는 학생을 먼저 보내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있을 재호

박 양 숙 (사랑부 교사)



▼ 재호와 함께 한 사랑부 집회 시간에

었다. 거칠고 말썽만 피우던 재호가 사랑부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매우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며 감사했고, 그의 찬송 속에서 늘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곤 했었다. 그러

나 그 해맑던 얼굴과 그의 찬송 소리는 이제 는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지난 토요일(4월 13일) 간질 증상으로 쓰러진 그는 영영 다시 일어나질 못하고 아홉 해의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재호가 지금 무척이나 보고 싶다.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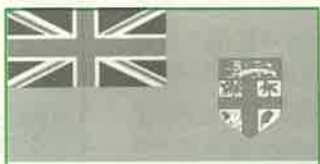
장애인주일에 생각해 보는 명언

태양을 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헬렌 켈러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⑥ - 참가국 ③

피지 (Fiji)



- 면적 - 18,724Km²
- 인구 - 794,000명(1995년도 현재)
- 공용어 - 영어
- 수도 - 수바
- 경제 - 주요 수출 소득으로는 관광업과 설탕 판매. 인도인 공동체가 거의 모든 상업활동을 지배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 정치 - 1874 - 1970년 사이 영국 통치. 독립후 피지인과 인도인 사이의 균형이 1987년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도인 정부 수립을 막으려는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로 깨어졌다. 영연방으로부터 축출된 후 군사정권은 피지를 공화국으로 선포함. 199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피지인들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피지 정치지도자들간의 분쟁, 경기 쇠퇴와 계층간 긴장고조로 1992년까지 선거가 연기되었다. 1987년 이후 많은 인도인 사업가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이민을 떠났다. 1988년 로투마섬은 피지로부터 독립을 시도하였다.
- 종교 - 쿠데타 이후 정책은 현재 지도자들의 강력한 견해를 반영하여 주일을 지키는 등의 기독교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가 53.4%(그 중 개신교는 42.6%이며 성장율은 0.2%).
- 선교사 - 피지 사역 선교사 - 25개 단체의 77명 (인구 9,700명 당 한명의 선교사)
피지 파송 선교사 - 6개 단체의 301명 (개신교인 1,050명 당 한명의 선교사)

■ 피지는 지금

- ① 심한 인종간의 분쟁 - 47.7%의 피지인과 46.2%인 인도인 간에 깊은 골이 패여있다. 이러한 갈등은 1987년 쿠데타로 정점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정치적 해결의 길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 ② 토착민의 4%가 기독교인 -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비율이 적다. 순전히 문화적인 이유로 1세기전 기독교를 수용했고 율법주의, 명목주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영적 신에 대한 숭배가 만연되고 있다. 알콜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
- ③ 새로운 복음적 교회의 성장 - 감리교,성공회,카톨릭교회내 복음주의적 단체들이 성장하고 있다. 감리교회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러나 교회내 분열이 심하고 물몬교와 여호와의 증인도 성장세.
- ④ 미전도 종족 - 힌두교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더디나 기독교로의 개종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크교도들과 중국인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전도활동은 아직 없다. 문제는 5만 6천명에 달하는 회교도. 이들은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개종자에게 심한 핍박을 하고 있다.
- ⑤ 현지의 신학교 - 감리교신학교, AOG 성경학교, 남태평양 선교촌, AFC 성경학교, 침례교 기독교지도자 대학이 있다.
- ⑥ 청년들과 학생들의 태도 - 매우 수용적이다. CCC 등의 사역을 통해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태평양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수바에 있는 남태평양 대학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 ⑦ 성경 보급 - 남태평양 성서공회 본부가 피지에 있다. 피지어와 피지힌디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⑧ 기독교 지원단체 - 국제기독교여성선교회(Christian Women Communicating International)의 활동과 국제기독교연합회의 성경반포, 교도소선교회(Prison Fellowship), 기독교 간호사선교회(Nurses Christian Fellowship)의 사역.

새 예배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

효과적인 '모임과 나눔' 위한 논의 활발 온반 어려운 물건은 명세만 접수

새 예배당 건축 기금을 마련키 위해 5월 1일(수)와 2일(목), 양일간 우리교회당에서 개최하는 『모임과 나눔의 장』의 준비가 한창이다. 전도회별로 중고물품의 수집과 효과적인 분류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판매물품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으는 것은 학용품, 책, 옷, 화장품, 가구, 악기, 그릇, 생활필수품, 컴퓨터, 자동차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물건인데 이번 바자를 주최하는 여전도회 협의회에서는 중고품은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수리·수선하고 헌옷의 경우도 세탁하고 손질해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여전도회 협의회에서는 자영업자를 하는 성도들의 생상품 및 취급물품의 기증과 판매도 환영하며 특정업체와 협력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번 바자에 관련 업체들과의 협의 및 홍보에도 계속적으로 힘써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구나 부피가 큰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등은 명세만 제출하면 구입을 원하는 성도와 직접 연결하여 판매 또는 교환토록 할 예정이다.

우리교회는 그간 후손에 물려줄 환경을 생각하고 물자를 아끼며 절제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모임과 나눔의 장』을 여러 차례 열어왔다. 모은 물품 및 상품의 판매 금액 전액을 건축헌금으로 바치게 될 이번 『모임과 나눔의 장』은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는 데 또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 ▶ **모임** · 모으는 때 / 4월 15일(월) - 5월 1일(수)
· 모으는 곳 / 평일 사무국,
주일과 수요일예배 전: 교회당 앞
- **모으는 것** / 상품이 될만한 것은 모두
※ 중고품은 활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여 기증
- ▶ **나눔** · 나누는 때 / 5월 1일(수) - 2일(목)
· 나누는 곳 / 서울교회당 앞마당, 3층, 옥상)
· 나누는 것 / 모은 물건들, 기타 상품,
먹거리... 그리고 사랑



■ 선교보고 - 몽골 / 황필남 선교사

공산화 되기 직전, 국민의 20 - 25%가 승리할 정도로 몽골에는 라마불교가 성행했었으나 공산화되면서 불교의 세력은 모두 숙청되었고 지금으로부터 5년 5개월 전, 소련의 공산화가 붕괴되면서 몽골도 7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망의 그늘진 땅 몽골에도 영적인 봄이 오기 시작했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파송받았을 당시 몽골에는 1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만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은 5천여 명의 성도로 부흥되었고, 도청소재지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에 힘입어 그간 성경공부와 교회개척에 주력하면서 찬송가 I, II, III집과 마태복음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스블론과 납달리 땅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마5:15 - 16) 몽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조나단 선교사 몽골에 파송

김미원선교사 신병 치료차 귀국

우리교회 당회는 몽골에서 사역 중이던 김미원 선교사가 신병 치료차 귀국함에 따라 김 선교사의 후임으로 한 조나단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⑦ 5월 6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신세대의 고민과 처방 (류상열 박사)
- ⑧ 5월 12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타종교와의 대화 (전호진 박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개혁의 강단」 매 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장애인들도 복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2.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3.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4.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